

# “폐허의 조국에 희망 선물하러 왔습니다”

## U대회 조직위 항공권 지원 ‘네팔 선수단’ 입국 선수단 절반 줄여 50명... 유니폼·체류비도 막막

“선수단 유니폼도 없지만 지진 참사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희망을 선사하겠다는 선수들 각오가 대단합니다.”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조국의 국민에게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 네팔 선수단 1진이 광주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 참가를 위해 1일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원한 1000여만원과 자비를 털어 항공권을 마련한 일부 선수단(24명)은 이날 낮 12시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네팔 선수단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진 피해를 입은 선수를 제외하는 등 선수단 규모를 대폭 줄였다. 네팔 당국은 지난 4월 발생한 대지진 피해를 수습하느라 선수단을 지원

할 여력이 없다.

네팔 선수단은 애초 계획했던 80여명 규모의 선수단을 절반으로 줄여 대회에는 참가하지만 앞날이 녹록지 않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입고 땀 유니폼도 없고 선수촌 숙박비 등 체류비를 당국으로부터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출국 당일인 이날 오전 국기도 들어가지 않은 반소매 상의가 유니폼의 전부다.

슬픔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안기겠다는 선수단의 각오에도 훈련량이 절대 부족했고 양궁팀의 경우 활과 화살 등 장비 부족에 투입된 날이 많아서 제대로 훈련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면서 “어찌 보



네팔 선수단 양궁팀 이충운(45) 감독·크리스티나 마야(여·23), 파라카스 구름(23) 선수.<이충운 감독 제공>

면 대회 참가 자체가 기적일 수도 있지만, 국민에게 메달을 선사하려는 선수들의 의지가 기적을 만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영달(45) 감독이 맡고 있는 태권도팀도 열악한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권 감독은 “7~8명의 선수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지진이 나면서 계획이 엉클어져 버렸다. 일부 선수의 경우 자기 부담으로 네팔 선수단을 많이 응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팔 선수단은 태권도, 양궁 등 9개 종목 30명의 선수 등 5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입촌식은 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후 선수단 대표 등은 대회 조직위에 유니폼, 체류비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단=김형호기자 khh@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U대회 이모저모

### 금호, 입장권 1억원 구매 약정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일 1억원어치의 광주U대회 입장권 구매를 약정했다.

김성산 금호아시아나그룹 부회장은 “지역민이 자부심을 갖고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U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향토기업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8년 광주시의 U대회 성공 유치를 위해 성금 20억원을 기탁하고, U대회 개최 확정 이후에도 아시아나항공·금호고속 등 계열사를 통한 후원을 이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부터 광주U대회와 관련해 무료항공권 지원, 운임 할인, 경기장비 운송 등의 항공 관련 서비스 후원을 하고 있다.



“U대회 성공 개최 파이팅~” 1일 오전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광주U대회 성화안치 출발식에서 김영선 전남도 행정부지사, 성화봉송단 조병만 단장, 전남도립국악단,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원 등 참석자들이 U대회 성공개최를 외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KIA 필, 美 모교 후배 응원

KIA 타이거즈 외국인 선수 브렛 필이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하는 모교 후배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구단 유튜브와 트위터에 남겼다.

이번 대회 야구 종목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폴터턴캠퍼스가 미국대표로 참가한다. 필의 모교인 폴터턴대학의 ‘타이탄스’ 야구팀은 4차례 미국대학체육협회(NCAA) 컬리지 월드시리즈(CWS)를 제패한 야구 명문이다.

필도 2004년 팀의 컬리지 월드시리즈 우승을 일구며 ‘차랑스러운 동문’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여용기자 wool@

## 성화 최종주자는 ‘특급비밀’

### 성화대, 서석대 형상화

광주 U대회를 밝힐 성화대와 최종 성화 점화 주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화대는 개최국과 개최 도시를 상징하는 것으로, 개최식 하이라이트 ‘깜짝 이벤트’로 공개되는 것이 관례다. 이에 따라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도 성화대와 최종 성화 점화 주자에 대해 극도의 보안 을 유지하고 있다.

성화대는 무등산 주상절리대의 상서로운 서석대와 입석대를 형상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화 점화 방식도 관심이다. U

대회 조직위 측은 빛고를 광주의 이미지에 맞춰 빛을 활용한 점화 방식이라는 말 외에 일체 함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광주 U대회의 개최식과 폐회식의 주제가 ‘빛’이라는 점에서 LED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점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최종 성화 점화자가 누가 될 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개막식 성화 점화자인 배우 이영애씨가 사전에 노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는 점에서 광주 U대회 조직위의 보안은 더욱 철저하다.

광주 U대회 최종 점화자로는 전·현직

스포츠 스타, U대회의 특성에 따라 아마추어 선수 등의 선정 가능성이 높다.

화산 출신의 배드민턴 영웅 이용대, 광주 출신의 첫 프리미어리거 기성용, 자신의 이름을 단 ‘양 2기술’ 세계 체조사를 새롭게 쓴 양학선 등이 유력 인물이다.

여기에 시민운동가 출신인 윤정현 광주시장이 소외계층 배려 정책 등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다문화 가족, 탈북자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도 조심스럽게 접목되고 있다.

광주시가 민중·인권·평화의 도시이자 문화 도시라는 점에서 5·18 관련 인물이거나 인권 운동가가 최종 점화자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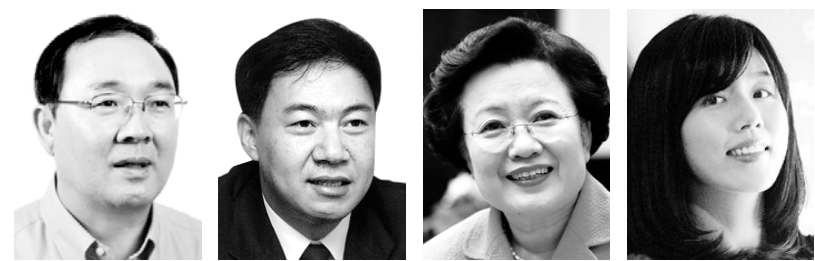
/특별취재단=박진표기자 lucky@

알립니다

## ‘광일춘추’ 새로운 필진을 만나세요

2015년 하반기를 맞아 광일춘추가 새 필진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광주일보를 비롯 전국 7개 지방신문사 공동발행인 광일춘추는 각 분야 권위 있는 전문가와 날카로운 통찰력을 갖춘 필진으로 구성, 역동하는 사회 현상과 변화 세태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양무진 교수 김욱 교수 이배용 전 총장 김선우 시인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김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한국선거학회 회장
-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약성평등교육진흥원 이사장
- ◇김선우 시인·소설가
  - ▲제9회 전상병시상(2007) ▲제49회 현대문학상(2004) ▲시집 ‘나의 무한한 혁명에게’, 장편소설 ‘발원-요석 그리고 원효’ 외 다수 책 출간.

光州日報社

## 당정, 추경 10조원대 편성

### 20일 이전 국회 통과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예산(추경) 규모를 10조원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르면 오는 6일 추경 예산안과 함께 연기금의 추가 활용 방안을 포함한 재정 보장 내용을 국회에 제출, 오는 2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우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합의했고, 세입 경영예산을 잘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재정 건전성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메르스로 피해를 보거나 경영이 곤란해진 병원에 대해 손실을 보조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로 증설 필요성이 제기된 공공병원과 음압·격리 병상을 추경 편성을 통해 확충하기로 했다.

또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와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중장기 대책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당정은 가뭄 대책과 관련, 가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해 위험이 있는 노후 저수지를 보수하고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에도 정부 예산을 지원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메르스 및 가뭄 대책과 거리가 먼 경기부양용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눈먼 돈으로 지출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밝은광주안과 의원**

진료내용

**라식 LASIK**   **라섹 LASEK**   **ICL 안내렌즈삽입술**   **SMILE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어지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편을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운암동 광안  
상우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원

의료광고심의회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